

ISO 국제표준과 전자책 시장 향방

김태현 디알엠인사이드 전무

1. 머리말

지금은 고인이 된 자타공인 IT 천재 스티브 잡스가 2001년 10월에 애플의 아이팟 기기 제품 출시회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조그만 기기에 CD 품질의 노래 1,000곡이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나요?”

당시만 해도 음악을 사랑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시락통 만한 휴대용 CD 플레이어와 CD 몇 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유행이었고, 일부 앞선 사용자들조차 20여 곡 남짓 들어가는 최신형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고작이었을 때였으니, 1천 곡이 넘는 음악파일이 명함지갑 만한 크기의 기기에 저장되고 순식간에 검색되어 재생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음악 유통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개별 스마트폰을 통해 듣고 있으며 더 이상 CD와 같은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들을 디지털 저작물들로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방식을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소비문화로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음악시장의 경우 국가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010년부터 MP3 시장이 기존 CD 음반시장의 매출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스트리밍 시장까지 가세된 지금은 완전한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영화 및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 산업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드라마의 경우 지금은 자신의 PC나 휴대폰 또는 TV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편화되었고 예전처럼 DVD를 대여해서 전용기기를 통해 재생해 보거나, 소규모 상영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미래에 거대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자책 시장과 관련 표준화의 동향을 살펴본다.

2. 전자책 시장 현황

2000년 3월 'Riding the Billet'이라는 전자책은 미국 아마존 사이트로부터 단 하루 만에 24만부가 판매되면서 바야흐로 전자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다. 이후로 신문이나 연재물과 같은 가벼운 주제를 다룬 저작물의 경우 디지털 및 온라인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곧 일반적인 전자책 시장도 여타 전통 저작물 시장과 유사한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신기술의 보급 이후 20년이 다 되어도 전자책은 종이도서 시장의 매출규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과 킨들의 등장으로 전자책의 상승곡선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악이나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가파른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유독 도서 부분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마법이 더디게 적용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는 전자책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과 사용 불편 그리고 킬러콘텐츠의 부재를 들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는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용자들의 종이책 선호는 유튜브와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익숙한 신세대들의 성장과 단순 종이책을 디지털화한 현 전자책 유형의 탈피, 그리고 전자책 기기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점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불법복제 우려는 특정 기업이나 저작권관리 단체를 설득해서 해결되었던 타 장르에 비해 설득대상이 되는 개인작가나 출판사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당분간 답보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 전자책 DRM과 표준

전자책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은 단연 일명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 불리는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적용이다. 단, 전자책에 DRM이 적용될 경우 특정기와 특정 응용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관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자책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침해하지 않은 표준 DRM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보안과 사용자 편리성의 조화를 반영한 전자책 DRM 표준이 2014년 12월부터 KS표준(KS X 6027)으로 제정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Radium LCP라는 이름으로 산업표준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 ISO/IEC JTC1/SC34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로부터 추천된 전자책 DRM 전문가들이 KS표준과 Radium LCP 국제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전자책 DRM을 위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도 2020년 하반기 정도면 ISO TS 23078이라는 표준명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맺음말

전자책 DRM에 대한 국제표준은 당장 전 세계 공공전자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무료 전자책 도서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SO 표준이라는 신뢰감으로 저작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양질의 전자책들이 도서관으로 공급되며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에서 복수의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전자책 도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전자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전자책 상용서비스 이용에도 적용될 것이다. 작가들과 일반 고객들이 전자책에 대한 유통과 사용에 거부감이 없어진다면 향후 전자책 시장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유형의 디지털콘텐츠와 동일한 패턴의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기대된다.